



밀양 관아 앞에 19개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이 중 맨 앞에 정병하 공덕비가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명성황후 지하에서 땅을 치며 통곡할 일 정병하 공덕비 밀양관아 앞 '버젓'

황후 시해공범... 충절의 고향 밀양 비웃어

1994년에 밀양문화원에서 발간한 밀양지명고에는 정병하(1849~1896)가 산내면 용전리 용업의 한골대(谷)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1849년 中人가문으로 태어나 1881년에 金玉의 신사 유람단에 通商事務衙門의 관리로 동행했다.

이후 그는 철저한 개혁파 주종자로 바뀌었다. 1886년에 主事에서 仕官으로 승진하고, 1888. 5부터 1894. 7까지 밀양부사로 재직했다. 밀양부사로 재직중일 때 낙동강의 뚝을 막아 농토를 확장하고, 30만

냥의 미납세금을 해결하였으며, 農政要務를 지었으며, 密州章程을 만들기도 하였다.

1894 7에는 金弘集 내각의 農商衙門事務, 1895년에는 왕실재무를 책임지는 內藏院卿, 농상공부협판, 大臣署理를 차례로 역임한다.

정문 입구에 세워진 비석은 역대 부사들의 공덕비다 밀양관아지(密陽官衙址)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 270호로 지정됐다.

이곳에 세워져 있는 19개의 공덕비는 조선시대 밀양도호부의 부사와 밀양을 관할하던 관찰사 등이 재

임기간에 베푼 선정과 애민정신을 후세에 알려 표상으로 삼고자 밀양 부민들이 세운 비석이다. 영남루 일원에 있었던 것을 밀양관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관아의 의미와 조화가 되는 공덕비로서 2009년대에 밀양관이 건립 당시 지금의 자리에 옮겨 세워진 것이다. 이 비석들 중에서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공모자 정병하의 공덕비가 버젓이 자리잡고 있어 일각에서는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역적 정병하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나던 밤 황후시해 사건의 결말을 알고 당일 '내장원경(內藏院卿)' 직을 맡고 있어 당직을 서고 있었다.

당시 47세의 정병하는 '내장원경'이라는 직책으로 왕실의 재정을 맡고 있었다. 그는 1882년 김옥균이 일본에 사절을 갈 때 수행하여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이 후 그에게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는 김옥균을 따라 철저한 개혁파 추종자가 되었다.

명성황후시해 전날인 19일... '황후'가 '정병하'를 찾았다. 그리고는 격정스러운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 일부에서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루머들이 퍼져있는데 관췌겠느냐고 물었다. 지난 번 인공관 때도 궁궐을 구사일생으로 빠져나가 민가에 숨어 몇 달간 내야 했던 기억이 새로웠다. 그때는 '대원군'이 주도하여 국상까지 치를 뻔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황후의 격정스런 질문에 정병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라, 일본군 몇 명이 대궐에 들어닥치더라도 성심껏 성공황후를 보호하겠습니다. 신에게 다 대비책이 있어오니 조금도 의심하거나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황시 피하를 구분 못하는 남인들의 갑남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숨어 있었다. ▶2면에 계속

송전탑 외부불순세력 척결 권기대회 무산

밀양사회봉사단체협, 성명서로 대체... 경과지 주민 항의 받아

한국전력공사(아래 한전)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지 11일째인 지난 12일 오전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공동대표 김태호·최화선)가 '외부 불순세력 척결 권기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행사 자체 가무산했다. ★관련기사 2·3·11면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밀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집회 시작 30여분 전부터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이 밀양시청 마당에 모여 들었다.

집회 시각이 가까워지면서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한 두명 밀양시청 앞에 나타나자 할머니·할아버지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 회원들은 달아나다시피 하면서 물러났다.

이날 오전 11시30분경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은 "총력대회를 취소했다"며 "주민들이 들어가서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방송 차량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가운데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 '외부 불순세력 척결 권기대회'가 주민들의 항의에 부딪혀 회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는 "주민들은 해산하라"는 선무방송을 했다. 이에 주민들은 "경찰이 사유 재산에 위배되고 있는 것은 관췌고 시민이 시정에 오는 게 불법이다"고 외치기도 했다. 주민들은 1시간 가량 밀양시청 앞에 모여 있다가 해산했다.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집회를 열지 못하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 단체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고향 밀양이 최근 송전탑 공사 재개에 따른 사생결단식 반대투쟁과 이를 막으려는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으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시, 내년 광특예산 176억 확보 '경남 최다액'

신규사업 5개 선정

밀양시가 내년도 광특예산을 175억 7000만 원 확보해 경남도내에서는 최다액을 기록했다. 광특예산은 지역의 특화 발전이나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밀양시는 이번이 신규사업 5개가 선정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밀양시는 "열악한 재정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광특예산 확보에 매진했

다"며 "연구용역, 농축수산물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직원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이 분야에서 도내 최대 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사업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일 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시군자율권 성사업으로 하남읍소재지종합정비 사업 70억 원, 상동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 49억 원, 고례면역종합정비 사업 30억 4500만 원, 조종저수지경관개선사업 12억 600만 원, 기타사

업으로 슬방 13억 200만 원 등 총 5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밀양시는 내년부터 최대 4년간 연차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한편, 밀양시는 "2014년 신규사업 외에도 2010년에 선정된 삼랑진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 계속사업 12개 사업을 포함해 총 17개 사업에 1174억 7200만 원을 확보해 각종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밀양 생기 잃어가고 있다 도시 쇠퇴현상 두드러져

인구 11만의 문화예술의 도시 밀양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한 때 25만 인구의 활력이 넘치는 밀양의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 쇠퇴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전국 쇠퇴 도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6.1%인 128곳이 쇠퇴 진행지역인 '쇠퇴도시'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도시' (쇠퇴진행 지역, '정경하는 도시'

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다. 산업 쇠퇴 지역은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며, 주거환경 악화 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이다. 경남도에서는 거창군과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등 11곳이, 울진군 지역에서는 중국 1곳이 각각

도시 쇠퇴진행 지역인 쇠퇴도시로 분류됐다.

이런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도시 쇠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월 30일 국회 통과를 오는 12월 5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일환으로 국토부가 2014년도 예산 1천200억 원을 편성해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고 다른 부처의 도시재생 유관사업과의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구독신청: 광고문의 TEL 055)351-3211 FAX 055)351-3212

▶▶ 송전탑 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에게 문제점을 듣는다 11면

11월 2일(토)

11:00~11:30	계장식-태이포크임식 및 명예블로거 위촉식
11:30~12:00	오르농공연 - 대북공연
12:00~13:00	주요주요 열음골사과 참여이벤트
13:00~14:00	다문화콘서트 - 밀대관, 오사리아, 해라
14:00~15:30	특별공연-법흥상원놀이 / 벚꽃놀이
15:30~16:00	밀양 열음골사과 & 관광객 참여이벤트
16:00~17:00	'투게더가요제' 관광객 축식 예선전
17:00~17:30	평년기원제
17:30~18:00	대형밴드 퍼레이드
18:00~18:30	공식개막행사
18:30~19:00	차이리듬 & 댄스공연
19:00~21:00	제16회 밀양열음골사과 '투게더가요제' - 찬양곡, 김민용, 김수지, 김세림
21:00~21:30	벚꽃놀이

11월 3일(일)

11:00~11:30	오르농공연 - 전자비올라
11:30~12:30	주요주요 열음골사과 참여이벤트 & 김박 경대이벤트
12:30~13:00	열음골사과요리경연대회
13:00~14:00	관광객 축식 참가자랑 & 놀이마당
14:00~15:30	청소년문화제-철명의 행진
15:30~16:30	김박 경대이벤트 & 열음골사과축제 관광객 참여이벤트
16:30~17:30	통기타 & 색소폰공연
17:30~18:00	각종 시상식 - 사과품평회 어린이 시상대회, 요리대회
18:00~19:00	하트심어 콘서트 - 김건모, 정윤정 등 모성출연자
19:00~19:30	가을밤 페스티벌 - (리뷰) 드라마 T200 OST 가수 난이진
19:30~20:30	초대 가수 축하공연 - 신유, 굿댄디
20:30~21:00	송명 및 매화-현모진 추심
21:00~21:30	벚꽃놀이

일시 _ 2013년 11월 2일(토) ~ 3일(일) 오전 11시
장소 _ 밀양열음골공영주차장
주관 _ 밀양열음골사과발전협의회 (T : 055-356-6458)
후원 _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농협

시, 첫 송전탑 주민지원조례 추진

“주민지원 별도 30억수준 보상위해 의회와 협의”... 뜬금없는 행동 반발도

밀양시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송전탑 경과지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임용수 밀양시장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전의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30억 원 수준의 주민보상 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주민 직접보상은 1개 마을에 1억 원씩 총 30억 원 규모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작해 적어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마을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전의 지원액과 매칭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해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 시장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밀

양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시는 드러나지 않게 밀양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시장은 송전탑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송전탑 갈등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려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이른 시일

내에 완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사항은 보상이 아닌 송전탑 우회, 지중화(지중 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보상문제를 들고 나온 밀양시장은 민심을 물리쳐 한참 모른다”는 등 밀양시의 대응에 대해 뜬금없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면서 이어 송전탑 쫓기대회 무산

이 단체는 “외부 정치인들은 밀양을 위한담시고 당신들의 당리 당락을 위해 책임못질 말과 행동을 자제하라”며 “이는 우리 밀양을 더욱 더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에 빠뜨릴 뿐임을 명심하고 일체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한전과 경찰은 공사를 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는 밀양시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경고하는 바이며, 만약 이 시간 이후로도 밀양의 갈등을 계속 조장할 경우 우리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 편이 회원들 비롯한 밀양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애초 주최측은 1000명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예고하였으나 실제 현장에는 20~30여명도 채 되지 않은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현현호 기자



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개최 2013년도 행감 계획서·조례안 심의

밀양시의회의장(의장 : 박희호)은 2013년 10월 23일(월)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제16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

관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심사 및 김상득 의원의 ‘자연발생유원지

종합관리 대책을 촉구하며’와 박상훈 의원의 ‘지역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 등으로 7일간의 의사업정이 이어진다.

▶면서 이어 정병하 공덕비 밀양관아 앞 ‘버적’

그 증거로는 그날 당시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의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정병하’는 ‘황후’가 죽자 이틀만에 일본 ‘미우라’ 공사의 사주를 받아 ‘황후’에 대한 ‘폐비(廢妃)’를 주장하고는 스스로 ‘폐비조칙’을 작성했다. ‘황후’의 온갖 악덕을 이우삼이 황후를 폐비로 만든 것이다.

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주도면밀한 교활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폐비조칙’을 작성했던 정병하는 그해 11월에 ‘단발령’ 포고에서 다시 한번 실력을 발휘했다. 궁궐주변에 포탄을 장전한 포를 빌려 세우 놓고는 ‘유길준’과 ‘조희연’이 고종을 압박하여 ‘단발령’을 포고하게 하고는 고종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 국민이 따라한다고 육박시켰다.

결국 ‘정병하’가 고종의 머리를 자르는 불충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

병하’의 목숨도 불과 몇 개월 가지 못했다. 다음해 2월 1일 ‘이관파천’이 일어나자 역적으로 처단되어 경무청앞에서 순검들에게 참살되었고 그 시신은 종로에 전시되었는데 군중들이 그 시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칼로 다시 찌어서 찢단냈다고 한다.

성난 군중들에 의해 부관참사된 만고의역적 정병하는 일제가 완전히 득세하던 1907년 일제의 주구들에 의해 쇠신도하라는 명분으로 죄를 벗게 해주었으며, 시호는 충희라고 지어 주었는데..해방후 미국에 발붙여 득세한 밀양의 친일무리들 때문에 아

직까지 서을 백성들에 의해 부관 참사된 그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정병하가 밀양부사로 있을 때 밀양을 위해 영남루를 중수 했으니 무방임을 보수했으니 하며 그의 공덕비가 복원된 밀양 관련 앞에 ‘충정대부 행도호부사 정후회병하 애민공덕비’라는 이름으로 충정의 고향 밀양을 비롯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향토사학자들은 정병하의 공덕비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박준금의 무릎을 꿇던 지 난시점의 역사를 때 울리게 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5분자유발언 |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지역축제 관람객 참여형으로 준비해야

박상훈 시의원

밀양시의회 박상훈 의원(52세) 나선거구 :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은 2013. 10. 23(수) 10:00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역축제에 대하여 지난 한해 전국시·도별 축제 현황이 758개나 되어 자치단체별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0개에 달하며, 여기에다 소규모 지역 축제와 테마축제를 합친다면 대략 2천400여 개로 특히, 봄 가을에는 전국이 매일 축제가 열린다고 하였다.

우리 밀양시에도 연중 축제와 행사운영비에 예산으로 41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밀양을 대표하는 향토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 외에 사시사철 12여개의 크고 축제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대부분을 축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공직자와 그 가족, 사회단체, 학생 등 밀양 시민을 축제의 장 속으로 이끌어 내어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되어야 관광객들도 밀양의 축제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입에서 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름 같은 인파가 밀양으로 몰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런 축제든지 주관하는 사람이든 관광객



이든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사전 충분한 벤치마킹과 철저한 준비는 물론 지역적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전통과 테마가 결합된 축제가 말로 성공할 수 있는 명품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자연발생유원지 종합관리대책 세워라

김상득 시의원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원(47세) 나선거구 : 내일, 내이, 교동, 삼문동은 2013년 10월 23일 (수) 10:00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종합관리 대책을 촉구하며”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개발로 맑은 물과 청정한 계곡은 우리 밀양의 빼 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산과 계곡에 불법 취사와 야영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자연발생유원지 18곳에서 처리한 쓰레기량이 318톤으로 5톤 트럭 63대 분량에 달한다고 말했다.

호박소가 있는 가자산 도립공원 관리와 주요 하천변의 불법이 안전사고 예방에 공무원과 안전요원, 대학생이브이트생 등 연인원 6200여명이 투입되었고 인건비와 제반운영비 등으로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넓은 관리 구역에 예산과 인력이 부족과 체계적 관리부재로 무질서와 불법행위가 활개를 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라 밝혔다.

푸른산과 맑은 물 아름다운산간계곡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할 우리 밀양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 말하면서, 지금 우리는 기업유치에 몰라라 하지만 정작 밀양의 산하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상득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밀양시가 산간계곡과 주요 하천 등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종합적 관리 대책을 수립,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재지정과 함께 주요 산간계곡의 자연휴식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축 최근 2004~2013 서울대학교 13명 합격

서울대, 연.고대, 포항공대, KAIST(카이스트), 성균관대, 부산대, 울산과기대, 경북대, 교육대 등 다수 합격

철저한 내신 성적관리로 서울대 등 명문대학 합격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율학교 세종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와 같은 전국단위 모집)

In Seoul...! 학습 전략이 통하는 세종고등학교

자율학교 세종고등학교는
1962년 개교 이래 오늘에 이르러 “전성을 겸비한 실력 향상”이란 교육철학 아래 미래의 주역들을 길러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몰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엔 자율학교 인가를 어렵게 획득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량해지는 사회변화의 추세속에 새로운 자율학교 입시제도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공부하는 학교, 명문학교로 도입하기 위해 선생님을 모두가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세종고등학교는 공부하는 학교, 실력있는 학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여러분이 익은 꿈을 더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학교 세종고등학교로 오십시오. 큰 뜻을 펼칠 여러분의 디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율학교 전국 단위 신입생모집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1. 지원자격: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전국)
2. 모집정원: 6학급 156명(남·여 공학)
3. 원서접수: 2013년 12월 9일(화)~12월 11일(수) 17:00까지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내신채점명부 사본 1부
 - 전형료: 6,000원
5. 합격자 발표일
 -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14,000여명의 동문의 힘과 전통의 세종고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가 됩니다!

세종고등학교

http://www.sejong.hs.kr
627-810 경남 밀양시 가곡8길 28
교무실 : (055) 356-7983-4
행정실 : (055) 356-7985
F A X : (055) 356-7990

세종의 약속 1. 정성을 다하여 가르치겠습니다. 2. 신뢰받는 학교, 공부하는 학교, 명문학교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행정대집행 현행법 위반 의혹 제기

시, 송전탑 반대주민 움막 당분간 철거 않기로

밀양시는 한전의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변에 있는 움막을 당분간 철거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천막 등으로 만들어진 움막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머무는 등 송전탑 공사저지의 근거지다. 밀양시는 움막이 산림법 등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울막을 철거했을 때 추운 겨울에 반대 주민이 노숙농성을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철거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들의 반대 투쟁 수위가 점차 수그러드는 등 전반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굳이 현 시점에서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점도 한 이유라고 밝혔다. 앞으로 송전탑 공사상황 등을 보아가며 울막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밀양시는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지난 2일 단장면 송전탑 건설 현장과 공시지재 아적장 주변에 있는 2개의 움막 가운데 1개를 철거했다. 당시 시는 산에 무단으로 설치됐거나 도로 구역과 맞닿아 산림법 또는 도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철거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아적장 인근에 있는 움막은 수차례에 걸친 밀양시의 행정대집행 시도에도 주민 반대가 너무 거세 철거하지 못했다. 현재 움막은 765kV 송전탑이 완공되지 않은 밀양시 4개 면 가운데 단장면에 1개, 부북면에 4개가 있다. 밀양시의 행정대집행은 지난 5월 16일 밀양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도로법과 신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움막과 콘테이너 등에 대하여 불법시설물로 판단하고 단장면 단장리 산83-9번지를 포함해 6 곳을 6월 15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통보하고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였다. 10월 1일부터는 움막과 콘테이너를 강제 철거하기 위해 공무원 등 원하여 현재까지 5곳은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밀양시장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도로법 제24조의3 제4항(도로 관리청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나 엄정하게도 다른 조항인 제43조 제3항(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代執行)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위반한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대측 주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등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움막을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제 철거에 나섰던 밀양시장이 정작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의 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잘못된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밀양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에서 밀양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밀양시장이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남도지사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잘못된 행정대집행의 민·형사법처리에 대하여는 사법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올 가을에는 예약도 뜯히고 아예 외지 방문객들이 없어 체험장이 텅 비어 있다.

농촌체험마을 발길 뚝 '울상'

바드리 마을주민들 피해보상 청구

밀양 송전탑 공사 열흘째인 11일 장지명(51세) 등 바드리 마을주민들은 송전탑 반대 외부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마을진입로를 막아 농촌자연체험마을 등 식량영양중단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송전선로 특별 대책위에 피해보상 청구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씨와 마을주민들은 자연농촌체험마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매년 농작물 체험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진입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이미 예약한 손님들이 모두 취소해 손해가 막심하다며 울상이다. 단장면 바드리마을 주민들은 농촌자연 체험마을로 가을 수확기가 되면 농작물 수확하기 체험으로 각광을 받았다. 한전과 경찰은 마을로 진입하는 길목에 배치되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단장면 바드리 마을 주민 장지명(51세) 씨는 외부세력진입을 차



단하기 위해 검문을 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뿐만 아니라 사료와 기름 등 생필품 배달이 어려워 소에게 사료를 제때 먹이지 못하는 등 불만이 많다. 특히 바드리 마을은 농촌자연체험 마을로 지정되어 매년 두부체험, 메밀묵 만들기 체험, 고구마 캐기 체험, 배 사과 따기 체험 등으로 지난해 마을 전체 소득이 5천7백만원의 수익

을 창출했다. 그러나 올 가을에는 예약도 뜯히고 아예 외지 방문객들이 없어 울상을 짓고 있다. 울들이 6백여명의 예약이 취소되어 이 마을 가을철 주 소득원이 완전히 막혀 현재까지 약 1천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차량통제로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어 소사료와 대추 건조기 기름이 떨어져 소를 굶기는 등 제 때 작업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한편 이 마을 주민대표 장창명 씨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송전선로 특별 대책위에 청구했다. 마을 전체 주민들의 피해는 농촌체험행사 중단에 따른 피해, 다산농업 영농 중단에 따른 피해, 농장의 농산물 출하 중단 및 수확중단에 따른 피해, 축사사료 수송중단에 따른 피해, 개인농산물 수확 체험 활동 중단에 따른 피해 등 전체 1억2천 8백 여 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명분없는 송전탑 공사 중단”

밀양주민 기자회견... 박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지난 18일 밀양 주민들이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밀양에서 상징한 주민 80여 명과 환경·시민단체 50여 명은 “명분 없는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80세가 넘는 밀양 평밭마을 주민 김길곤 씨는 힘겹게 마이크를 잡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마을을 왜 이렇게 만드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두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눈물을 쏟았다. 김 씨는 “우리에게는 대안도 있다. 그런데 왜 주민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고 옛날 독재시대 처법 하는가. 공산국가도 이렇게 하

지는 않느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전은 지난 2일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며 내년 8월 완공되는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3·4호기 제아제이블 성능시험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점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밀양 단장면 용화마을 송 루시아 씨는 “지금 여기에 없는 어르신들은 현장을 지켜며 산길 흙바닥에서 매일 비닐을 덮고 노숙하신다. 가쪽거리 함께 식사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한창 바쁜농사철에



농사일 포기하고 이렇게 서을 한복판에 나와 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3000명이나 되는 경찰병력이 몇 십 명 안 되는 주민들을 막고 한전의 공사를 돕는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한전 편을 드는가? 언론은 어떻게 공사가 순조롭다고 보도하는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기자들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와 마을 주민 대표 이남우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개서한에서는 “대통령은 극소수 찬성 측 주민과 관변단체, 한전 관계자들의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극렬하고 처참하게 지내는지 봐달라”는 호소와 함께 ▲ 송전탑 건설공사 즉각중단 ▲ 국무

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경찰청 책임자 처벌 ▲ 밀양 송전탑 사회적 공론화기구 구성 등의 요구를 담았다. 주민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큰절을 올린 후, 오후 2시에는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이 절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전에 잘 박탈하고 사정하는 절이 아니라, 그동안 관심을 가져 준 국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마음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는 절”이라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서울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민들과 서울대 한문 앞에서 매일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국제사회도 “밀양 인권침해 심각” 우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국제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아시아인권위원회와 포럼아시아, 시비쿠스 국제인권연맹 등 세계 인권단체들은 최근 밀양시대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긴급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전세계 17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제인권연맹’은 지난 10월 박

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연맹은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는 주민 참여를 우선순위에 뒀어야 한다”며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과정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 ‘프론트 라인 디

펜더스’는 구속된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과 환경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또, 전세계 80개국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인권단체 ‘시비쿠스’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에 관련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농성장에 대한 식수, 음식물 등의 자유로운 반입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필기자

밀양아리랑신문 밀양포털 www.miryang.kr

■대표이사 발행인: 박대영 편집국장 장현호
 편집인 김성수 사회 문화부장 현현호 총무국장 이광필

■등록번호: 경남 대이 484 ■TEL: 055)351-3211
 ■간별: 주간 ■FAX: 055)3351-3212
 ■후원계좌: 농협 351-0638-1163-13 ■E-mail: janghh6204@hanmail.net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31 예성빌딩 2층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밀양아리랑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밀양시건축사회

성명	직책
최광호	건축사(회장)
엄용현	건축사(부회장)
윤영재	건축사(직전회장)
석희역	건축사(감리협회 회장)
송재원	건축사(감사)
김홍수	건축사(감사)
이상길	건축사(총무이사)
이종석	건축사(건축문화·법제 분과위원장)
나장규	건축사(교육·홍보 분과위원장)
조영정	건축사(회원친목 및 회원관리 분과위원장)
공용훈	건축사
김광휘	건축사
김무진	건축사
김종웅	건축사
김종한	건축사
남진우	건축사
박치영	건축사
박한규	건축사
백승운	건축사
안길한	건축사
윤재화	건축사
차기철	건축사
최진석	건축사
하봉수	건축사
황봉규	건축사

밀양시 시청서길 13, 2층 (내이동, 스마일빌딩) 대표전화 055-355-1323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전국동시 개최

12월 6일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신진용)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1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2월 6일 밀양아리랑 표준 플래시몹 행사를 전국에 동시 개최한다.

개최지는 5개 권역 6개 도시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밀양역 광장, 서울역 광장, 부산역 광장, 대구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내 화합의 광장,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 창원 정주상가 앞이다.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밀양아리랑 표준 플래시몹의 전국 동시 개최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1주년을 기념하여 이 해 겨울 영남지방은 물론이고 한국을 넘어 지구촌이 하나되는 Happy Happy 아리랑으로 울려 퍼지길 기대하면서 추진한다.

밀양교육지원청에서 밀양아리랑 표준 플래시몹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2012년 12월 6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해를 계기로 영남지방의 대표아리랑

인 밀양아리랑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알리고 나아가 아리랑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애호의식을 함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밀양교육지원청은 각 지역의 향우회와 지역총신의 대학생 및 동창회,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대의大義에 동참과 지원을 구하면서,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진용교육장은 "밀양아리랑 표준 플래시몹은 이미 유튜브와 밀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중국 장가항

시에서도 일본의 세포우찌시에서도 널리 울려 퍼지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행사에서도 활기를 불어넣는 이벤트로 울려지고 있다. 앞으로 밀양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밀양아리랑 표준 플래시몹을 통해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아리랑을 진정 사랑하고 빛낼 '아리랑지킴이'가 더욱 많아 지길 바란다. 끝으로 밀양아리랑 표준 플래시몹의 전국 개최를 위해 밀양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히 지역 언론인들의 홍보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현호 기자(janghh6204@hanmail.net)



시민의 날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신진용)은 지난 17일 밀양시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제18회 밀양시민의 날 기념 오프닝행사로 밀양아리랑 표준 플래시몹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밀양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밀양아리랑 표준 플래시몹을 SNS, 카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밀양시민과 학생들에게 알려 원래의 플래시몹의 취지에 맞게 기획하여 추진하는 행사로 밀양시민의 날 기념 시민한마당 축제를 뜨겁게 달구었다. 김성수 기자



특별지원금 시민장학재단에 기탁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우수시 선정... 2천400만원 전달

밀양시가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경상남도 우수지자체 4곳 중, 우수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16일 오전, 우수시에 교부되는 특별지원금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시설 지원을 위해 밀양시민장학재단에 기탁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계획은 경상남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1차 서면평가, 2차 현지점검 실시 후 보건복지부의 경상남도 우수지자체 4개 기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밀양시 관계자는 "특별지원금으로 우리시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 기금조성에 동참하고자 기탁 결정하였으며, 주민 욕구 및 변화하는 복지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밀양송전탑 관련 상반된 국민여론조사 결과 편파적 조사와 편향적 보도

밀양송전탑과 관련한 한진, 언론사 등에서 현재까지 실시한 4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사반대·중단 비율이 아래와 같이 급증하고 있다.

구분	10월4일 한진 (리얼미터)	10월10일 환경연합,서울대 보건대학원 (리서치뷰)	10월17일 JTBC (리얼미터)	10월23,24일 프레스인 (더플랜)
공사중단 (재검토)	17.9%	기 타 16.2%	14.5%	4.9%
공사진행	22.5%	일리있는 우려다 66.1%	38.8%	46.9%
공사진행	59.6%	근거없는 반대다 17.6%	46.7%	48.2%

한진은 지난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밀양을 포함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질문사항	여론조사 결과	기타	
최근 밀양시 송전탑 공사와 관련 전국민이 전역수급 불안 해소하기 위해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4개월만에 재개했습니까? 하지만 경과지 주변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밀양지역에 철탑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송전탑공사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9.6%	22.5%	17.9%

환경운동연합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질문사항	여론조사 결과	기타	
밀양주민들은 건강과 경관, 그리고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압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우려다 66.1%	근거 없는 반대다 17.6%	기타 16.2%
민약 선생님 재택 근처에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될 경우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한다 53.9%	찬성한다 19.1%	기타 27.0%
선생님께서도 평소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한다 84.9%	우려 않는다 13.2%	기타 1.9%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린다는 말이 있듯이 조사기관이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 또한 달랐다. 인문사범로 보도한 자료도 한 쪽에 치우쳐 있어 조사기관의 편파적 조사와 인문사범 편향적 보도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자수첩

현천호 사회·문화부장

건강한 밀양으로 가는 길 밀양에서 찾아야



한정사상 처음으로 국책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인해 "밀양법"이라고 불리는 "송주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져 시행 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밀양에서 살아 왔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우리들은 진정 무엇을 고민해야 건강한 밀양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됐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에서 주민들의 아픈 속내를 들여다보면, 입장 차이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네사람들끼리 상가집에 가는 일도 논쟁을 보는 지경이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농성장에 자리를 지키는 일, 농사일을 거들거나 송전탑의 내용을 바로 알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대한문 앞에서 송전탑 건설 중단을 위해 22일간 단식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마신의 한고 등학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격려하기 위해 밀양을 방문하기도 한다. 또 서울 홍대 거리에서는 주말마다 대학생들이 밀양송전탑 반대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76배가밀양의 어른들과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왜 이렇게 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도리마저도 저 버려야 할 만큼 고통이 깊어져 버렸을까? 우리 밀양의 작은 시골마을은 옆집에 밭고름이 몇 개이며 순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도 서로 알고 지낼 만큼 사이가 좋은 공동체로 살아왔지 않은가. 지나가는 아이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바지에 묻은 지저분한 것은 살짝 주면 이웃의 따뜻한 어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랑이 무너지고 있다. 송전탑 때문에 정부와 한진, 경찰, 이제는 밀양까지 상대를 해서 싸워야 하는 적박한 현실에 몸을 담게 되었으니 도대체 송전탑이라는 괴물이 이웃의 정과 도덕과 공동체 정신마저도 파괴를 자행하고 있으니 밀양은 지금 곳곳이 상처투성이이다.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서서 송전탑 문제를 고민하고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있을까. 과연 지금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문제는 경인지구 주민들의 일로 그동안의 고통이라 치부해 버릴 수 있을까. 그동안 밀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일이 끝나더라도 과연 반복과 같으며 한순간 봄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밀양으로 출발하는 버스가 세워져 있다. 밀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이 밀양으로 출발하는 버스에 오르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모든 정비는 스스로 부담한 채 밤을 새우며 밀양으로와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만

아름다운 공동체의 회복이 쉽게 평소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적어도 밀양인이라면 밀양의 따뜻한 이웃사랑 정신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어머니님과 아버님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순간 밀양 시민의 관심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적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진정 내 삶과 내 땅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송전탑으로 인한 상처들이 서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인해 쉽게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

밀양은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숨 쉬며 살아야 할 축복의 땅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시민정신으로 건강한 밀양으로 가는 길 함께 찾아가야 할 것이다.



맑은소리! 밝은신문!

(주)뽕이리랑신문사 인터넷신문 / 모바일 / 소핑몰 / 선거기획

대표이사 박대영, 편집국장/기자 장현호, 총무국장/기자 이광열, 문화/사회부장 기자 현천호, 편집인/기자 김성수

(주)밀양아리랑신문과 밀양포털 시민기자로 등록하시면 -

- 밀양포털 기사등록
- 명예기자증, 명함제공
- 기사 채택시 일정비용의 원고료 지급
- 밀양아리랑신문 주요정보공유
- 기타 밀양포털의 다양한 수익사업 참여

이웃들의 작은목소리!
따뜻한 지역신문!

(주)밀양아리랑신문,
밀양포털에서는 명예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주)밀양아리랑신문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신문을 지향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신문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 할 의욕있고 패기 넘치는 명예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경남 다 01484
(주)뽕이리랑신문사
인터넷신문 / 모바일 / 소핑몰 / 선거기획
밀양포털

경남 밀양시 내이동 예성빌딩 2층
TEL. 055)351-3211 FAX. 055)351-3212

구독신청 / 광고문의 010-2247-4870

나라사랑 마음 무궁화동산에 심다

예림초서 무궁화 동산 조성위한 묘목 기증·기념 식수

학교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 동산 및 길을 조성하고, 가정마다 무궁화 화분을 가꾸며, 무궁화 사랑을 통한 나라정신을 함양하고자 밀양교육지원청과 (사)무궁화사랑이 무궁화보급에 함께 나섰다.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신진용)은 우리나라꽃 '무궁화 동산 조성 및 무궁화 길 가꾸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간다. 밀양교육지원청은 「무궁화사랑 실천운동 본부」(본부장 신성철)와 협력하여 밀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

동산과 무궁화 길을 조성하고, 초·중·고등학교 1만1천여명과 교사 1천여명을 통하여 학생들의 가정과 화분이 없는 이웃에게 화분을 나누어 줌으로써 각 가정마다 무궁화 화분 보유할 수 있도록 '1가정1무궁화 화분 보급운동'을 펼쳐 나간다.

또한 학생들의 졸업기념으로 무궁화 묘목을 제공하고 졸업생이 학교 교정에 무궁화 묘목을 직접 식수함으로써 무궁화사랑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기회도 제공해 나간다. 우선 밀양교육지원

청은 10월 14일 (사)무궁화사랑과 함께 예림초등학교에서 무궁화 묘목을 전달하고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예림초등학교 학교장을 비롯하여 학생과 교사, 신진용 교육장을 비롯한 밀양교육지원청 관계자, (사)무궁화사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를 행사를 가진 예림초등학교는 (사)무궁화사랑으로부터 가정용 화분 200분과 졸업생을 위한 무궁화 묘목 100그루를 기증받아 무궁화 화분을 보급하고 무궁화동산

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밀양교육지원청 신진용 교육장은 올바른 국가의식 함양을 위하여 독도사랑교육, 밀양아리랑 표준춤매시뮬 개발 및 보급, 무궁화 사랑 운동'을 중심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번 에 전개하는 '무궁화 동산 및 무궁화 길 가꾸기'는 언제나 무궁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무궁화를 가꾸는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양해 나가는 실천적 방안으로서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정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예림초등학교에서 무궁화 묘목을 기증 받아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기 위한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조선해 표기 일 지도 공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를 일본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한 가운데,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지도가 공개됐다. 그것도 19세기 일본이 직접 발행한 지도다.

안정행정부 국가기록원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동해와 관련된 고(古)지도들 복원해 공개했다.

1844년 일본이 발행한 고지도인 신제어지지도(新製輿地全圖)는 세계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하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다.

이 지도는 19세기 최고의 일본인 학자인 미쓰쿠리 쇼고(實作省吾)가 프랑스인이 만든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당시 일본에 소개된 최초의 세계지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이 동해의 표기로 주장해온 '대일본해'는 일본의 동쪽 바다에 표기됐다.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미국과 1854년 화친조약을 맺은 후 갑자기 동해를 가리킬 때 조선해와 '대일본해'를 병기하기 시작했다"며 "외교관 강탈 이후 국제수로기구에서 일본어로 쓰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세기 중엽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작자 미상의 해조전도(海左全圖)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정확히 표기하고) 여백에는 우산군이 신리에 편입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광열기자

통신원



밀성제일고, 고교생 UCC 금상 수상

밀성제일고등학교(교장 김상희)가 지난 10월 19일 부산경남대표 방송 KNN, 부산시청지미디어센터, 동명대학교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고등학생 UCC 공모전"에서 2학년 영상미디어과 1반 조세빈, 윤소현, 최가민, 손성해 학생의 "10대 도전을 Dream"이라는 작품으로 금상(상금 100만원) 수상을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는 미래주역인 고등학생들에게 스스로 영상 문화를 제작, 체험함으로써 건전한 영상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며 창조적인 자기개발, 사회 봉사활동으로 남을 배려하는 인성함양,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도전, 창조, 봉사, 자연환경보호운동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번 경연대회 수상으로 밀성제일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키워주는 특성화고등학교임을 재확인 하였고 교육비전인 사랑과 감동을 실천하는 학교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성수기자

11월8일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밀양시는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25,000명(무료 15,000명, 유료10,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무로 예방접종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급여카드,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접종은 2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담당 ☎359-7023, 701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밀양시는 급변에 이상고온현상 및 가뭄과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으로 소나무 고사목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11월 3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목재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와 겨울철 난방용 펄감으로 훈증처리된 목재수출 및 이동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청에서 특별단속을 위한 중앙지모관 및 경남도 단속반과 경검합동으로

운영하여 실시하며, 피해확산을 위해 짚질방과 화목사용 능가 등에 대한 소나무류 이동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대부분 소나무류의 이동을 통해 인위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특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소나무류 재선충으로 부터 보호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공급한 사항은 산림복지과 산림보호담당(359-5357)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기자

상생협력으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농진청, 고성서 쌀국수 원료곡 생산단지 현장평가회 가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쌀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경남 고성군에서 '쌀국수 원료곡 생산단지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평가회는 농업인, 쌀 가공업체, 경남·북 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모여 쌀국수 원료곡 생산과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평가회에서는 쌀국수 원료곡 생산단지 현황과 개요, '새고아미'와 쌀국수용 품종 특성, 고성군 쌀 산업 발전방안과 지원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쌀국수 원료곡 생산단지를 살펴보고, 단지에서 생산된 쌀로 만

든 국수를 시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고아미'는 아밀로스 함량이 27.7%로 높아 쌀국수 제조특성이 우수하고, 쓰라짐이나 도열병, 흰잎마름병에도 강해 중부 평야지와 영남 남부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다.

한편,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새고아미' 생산단지는 연구기관, 쌀재배농가, 가공업체간의 상생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1년 고품질의 쌀국수용 벼 '새고아미'를 개발해 우량종자를 보급했고, 올해 총 43ha 규모의 생산단지를 조성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원하

고 있다. 쌀 재배 능기는 쌀국수 산업체와 계약재배를 맺어 안정적인 판로가 생겼으며, 가공업체에서는 균일한 원료곡을 확보하고 경남북 지역의 학교급식과 유명 쌀국수 식당에 고품질의 쌀국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신소재개발과 남민희 과장은 "앞으로 쌀 생산농가와 가공업체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그 하나로 원가를 낮추면서도 품질이 높고 수량이 많은 쌀국수 전용 품종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정현호기자

밀양아리랑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환경컨설팅

- 울주군 삼남면 일원 입지검토
- 함안군 대산면 일원 입지검토
- 함안군 범수면 일원 입지검토
- 경남 창원군 성산면 일원 입지검토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일원 입지검토
- 경남 고성 동해면 일원 입지검토
- 부산 기장군 일원 입지검토
- 김해 한림면 일원 입지검토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일원 입지검토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일원 입지검토
- 경남 사천시 곤양면 일원 입지검토
- 경남 진주시 진성면 일원 입지검토
- 함안군 수동면 일원 입지검토
- 함천군 웅주면 일원 입지검토 외 다수
- 장안레미콘 환경요인 검토
- 태양해운 폐수처리시설설치신고
- 피쉬리온드 폐수처리시설신고
- 미창석유공업 대기배출시설설치
- 용유이연도금공정 폐수처리시설공사
- 부경대 오수처리시설 보완공사
- 평산식물·오폐수병합처리시설공사
- 함안 오곡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총량배출량산정
- 김해 공장설립에 따른 총량배출량 산정

사전재해예방성검토

- 사전 도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사전재해예방성검토용역 외 5건

환경성검토

- 거제 (주)해원 공장증설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용역 외 36건

사업 중목

- ▶ 환경영향평가 및 컨설팅 분야
 - 사전환경성검토
 -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 협의내용변경
 - 환경영향저감대책수립
 - 민원관련 환경영향피해조사
 - 환경인·허가
- ▶ 환경엔지니어링 분야
 - 수질오염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 폐기물 자원화 시설
 -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산업폐기물)

(주) 에코 A & C

대표이사 박희선
C.P : 010-3569-8745

Assessment & Consulting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 1동 14번지
부산기능대학 창업보육센터 309호, 311호
TEL : (051) 343-3482 FAX : 343-3483
E-mail : safary22@hanmail.net

예향에 물든 32회 밀양예술제 성료

시민과 하나되는 예술축제로 호응

귀뚜라미 소리가 정겨운 10월을 맞아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밀양지회(밀양예총) 산하 8개 협회 주관으로 제32회 밀양예술제가 '예술한마당 시민과 통하다'란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수련관, 삼문동 송림, 밀양시립도서관, 문화체육회관 등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16일 오후 7시 문화체육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6회 소극장축제인 '너비'를 연극 '하루 인생' 및 굿거리, 민요연극, 밀양의 소리 함창이 시작되었다. 미술협회 주관으로는 16일부터 22일까지 밀양시립도서관 갤러리에서 미술협회 밀양지부

정기회원이 전시되었다.

문인협회 주관으로 19일 오전 9시 학생 시 낭송대회가 밀양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는 시화전이 16일부터 28일까지 삼문동 송림일원에서 열렸다. 또한 무용협회 주관으로 20일 오후 7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문신의 아리랑, 삼별초 아리랑이 공연되었다.

사진작가협회 주관으로 23일부터 29일까지 시립도서관 갤러리에서 제27회 밀양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사진협회 회원 작품전이 전시되었다.

음악협회 주관으로 25일 오후 7시 문화체육회관에서 밀양합창제,

연극협회 주관으로 26일 오후 7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리랑 연가' 연극이 공연되었다. 또, 국악협회 주관으로 27일 오후 4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밀양사람, 소리, 향기, 빛'의 주제로 가야금 및 해금 독주, 판소리, 기악합주, 등 판소리 한마당이 펼쳐졌다.

연예예술인협회 주관으로 28일 오후 7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박시춘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제1회 박시춘음악제가 개최되어 선인의 문화적 향기를 새삼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지난 16일 문화체육회관에서 가진 제32회 밀양예술제 개막식 및 소극장축제에는 임용수 시장, 박필호 의장, 김영기 도의원, 신진용 교육장, 석재민 밀양예총 후원회장, 박영

호 밀양예총 지회장을 비롯한 산하 8개 협회 문화·예술인,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가을분위기에 어울리는 류성영 색소폰아카데미 앙상블 공연과 이어서 경기민요공연이, 황해방 시인의 축하 시 낭송으로 제6회 소극장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소극장 축제에서는 음악, 국악, 연극 지부에서 준비한 공연이 펼쳐졌다.

밀양예총 산하 8개 협회는 예향의 도시다운 면모에 손색이 없을 만큼 밀양예술제가 지역의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닌 시민들의 문화적 이해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예술제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내용으로 시민들이 감동시켰다는 평을 얻고 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40편의 시들을 둘러보며 주옥같은 지역문인들의 아름다운 감성에 흠뻑 빠지고 있다.

밀양문학회 제15회 강변 시화전 시향에 젖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밀양문학회 제15회 강변시화전이 밀양시립도서관 광장에서 개최됐다.

조기를 높고 푸른 하늘빛에 물든 지역문인들의 시향이 시민들의 가슴을 촉촉이 적신 이번 시화전은 밀양의 산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박대영 본보 대표이사과 동행 취재해 4편의 시들을 둘러보며 주옥같은 지역문인들의 아름다운 감성에 흠뻑 빠져 보았다.

밀양문학회의 새 시대를 연다는 사명으로 26번째 밀양문학지 발행을 앞두고 있다.

주변 시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문학으로서의 갈 길을 제시하며 밀양문학의 자존심을 지켜온 이들의 노력이 예향의 도시 밀양의 자존심을 그나마 지켜내고 있는 셈인데 지역에서는 변방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더해 준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해 지역문학으로서의 갈 길을 제시하며 밀양문학의 자존심을 지켜온 이들의 노력이 예향의 도시 밀양의 자존심을 그나마 지켜내고 있는 셈인데 지역에서는 변방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더해 준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문화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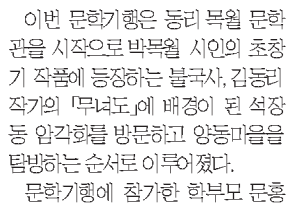
산내남명초 학부모 독서동아리 '책가방'... 경주문화기행



이전 문화기행은 동리 복월 문화관을 시작으로 박복월 시인의 초창기 작품에 등장하는 불국사, 김동리 작가의 '무녀도'에 배경이 된 석장동 암각화를 방문하고 양동마을을 탐방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문화기행에 참가한 학부모 문흥주 어머니는 "경주에 5번 이상 온 경험이 있지만 문화관이나 암각화, 등소설과 시의 배경이 되는 곳을 방문하기는 처음이었다. 책 속의 장소와 만나니 문화의 아름다움과 작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들었다."고 하였다.

이후에도 책가방은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11월에 거저밭, 집안치우기 등 '지연이와 병관' 시리즈의 고대영 작가가 초청 강연을 앞두고 있다. 현호 기자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신진용)에서는 10월 19일(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진로·문화기행' 행사를 초등학교 1학년부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마흔 가족 아흔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행사는 밀양교육지원청이 경남독서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진행한 명품 사업으로 5:1의 경쟁률이 말해주듯이 밀양시민들의 인기가 아주 높았다. 특히 문화생활

마흔가족 아흔명의 진로·독서기행 다양한 체험 가져



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정, 사회배려대상자 가족을 우선 배려했고, 치열한 경쟁에서도 이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이 행사의 뜻이 더 깊어졌다. 이번 행사의 여정은 10월 19일 오전 8시 30분에 밀양교육지원청을 출발하여 사천항공우주박물관으로 가는 동안 진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진로 성격 및 흥미 검사 실시 등 다양한 진로 탐색활동을 펼쳤다. 진로탐색활동의 일환으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진로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견학활동을 하였다.

삼천포 박재삼문학관에서는 문화해설사의 도움으로 그의 대표작인 '을유이 타는 강' 등 문학세계와 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독서의 중요성이 말해주듯이 밀양시민들의 인기가 아주 높았다. 특히 문화생활

이광열 기자

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정, 사회배려대상자 가족을 우선 배려했고, 치열한 경쟁에서도 이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이 행사의 뜻이 더 깊어졌다. 이번 행사의 여정은 10월 19일 오전 8시 30분에 밀양교육지원청을 출발하여 사천항공우주박물관으로 가는 동안 진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진로 성격 및 흥미 검사 실시 등 다양한 진로 탐색활동을 펼쳤다. 진로탐색활동의 일환으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진로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견학활동을 하였다.

삼천포 박재삼문학관에서는 문화해설사의 도움으로 그의 대표작인 '을유이 타는 강' 등 문학세계와 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독서의 중요성이 말해주듯이 밀양시민들의 인기가 아주 높았다. 특히 문화생활

이광열 기자

종합문화예술경연대회 성황

미술실기·백일장·음악·취미 등 열띤경연

밀양 문화원(원장 안병훈)이 주최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제36회 종합문화예술경연대회가 지난 10월 5일과 12일, 1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문화 정서를 함양하며, 시민과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창의력을 키우고 밝고 건전한 꿈과 희망을 심어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지난 5일(토) 문화체육회관 광장

에서 한국미술협회 밀양지부가 주관하는 미술실기 대회는 상화, 수채화, 한국화, 만듦기, 공예, 디자인, 카툰부분으로 경연을 펼쳤으며 같은 날 10시 밀양 관아에서 한국문인협회 밀양지부가 주관하는 한글백일장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운문과 산문으로 치러졌다.

음악 경연대회는 10월 12일 9시 한국음악협회 밀양지부 주관으로 피아노는 청소년수련관, 기악과 성악은 여성회관에서 경연하며, 취미 대회는 13일 10시 서도회 주관으로 문화체육회관에서 경연했다.

한편경연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19일 10시 밀양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문화의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됐다.

36년의 전통을 가진 종합문화예술 경연대회에 금년에도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문화와 예술의 도시 밀양의 내일 꿈나무들을 발굴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에서 한국미술협회 밀양지부가 주관하는 미술실기 대회는 상화, 수채화, 한국화, 만듦기, 공예, 디자인, 카툰부분으로 경연을 펼쳤으며 같은 날 10시 밀양 관아에서 한국문인협회 밀양지부가 주관하는 한글백일장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운문과 산문으로 치러졌다.

음악 경연대회는 10월 12일 9시 한국음악협회 밀양지부 주관으로 피아노는 청소년수련관, 기악과 성악은 여성회관에서 경연하며, 취미 대회는 13일 10시 서도회 주관으로 문화체육회관에서 경연했다.

한편경연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19일 10시 밀양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문화의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됐다.

36년의 전통을 가진 종합문화예술 경연대회에 금년에도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문화와 예술의 도시 밀양의 내일 꿈나무들을 발굴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미협밀양지부, 시립도서관서 김세화 등 62점 전시

올해 밀양미협이 최대 전시회가 미협밀양지부 주최로 16일부터 22일까지 밀양시립도서관 5층 미리내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밀양지역에 작품활동을 꾸준히 하고있는 한국화가 김세화 작가의 "수국 그리고...아래 작품 첨부" 등 한국화, 서양화, 서예, 도자기 작품 등 총 62점으로 시민들에게 밀양미술의 우수한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한편 옥창출 미협밀양지부장은 "올해 전시되는 작품은 모든 작가들의 감성이 더욱 풍부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됐다"며 "결실의 계절을 맞아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마음도 살찌우기 바란다"며 참석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성수 기자

올해 밀양미협이 최대 전시회가 미협밀양지부 주최로 16일부터 22일까지 밀양시립도서관 5층 미리내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밀양지역에 작품활동을 꾸준히 하고있는 한국화가 김세화 작가의 "수국 그리고...아래 작품 첨부" 등 한국화, 서양화, 서예, 도자기 작품 등 총 62점으로 시민들에게 밀양미술의 우수한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한편 옥창출 미협밀양지부장은 "올해 전시되는 작품은 모든 작가들의 감성이 더욱 풍부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됐다"며 "결실의 계절을 맞아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마음도 살찌우기 바란다"며 참석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성수 기자

올해 밀양미협이 최대 전시회가 미협밀양지부 주최로 16일부터 22일까지 밀양시립도서관 5층 미리내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밀양지역에 작품활동을 꾸준히 하고있는 한국화가 김세화 작가의 "수국 그리고...아래 작품 첨부" 등 한국화, 서양화, 서예, 도자기 작품 등 총 62점으로 시민들에게 밀양미술의 우수한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한편 옥창출 미협밀양지부장은 "올해 전시되는 작품은 모든 작가들의 감성이 더욱 풍부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됐다"며 "결실의 계절을 맞아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마음도 살찌우기 바란다"며 참석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성수 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지개가족의 서울 상경기' 문화체험행사

밀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다문화 가족교육으로 "무지개가족의 서울 상경기"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문화 가족의 서울 나들이는 밀양시에서 기획여행 배우처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45명이 참가해 서울과 경기도 인근지역의 문화 명소인 남산, 남산, 방송국, 63빌딩, 에버랜드 등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서울 여행의 기회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여행 장소 선정은 다문화 가족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장소 설문조사 결과 선정되었다.

평소 여행의 기회가 적은 다문화

가족에게 문화여행은 가족단위로 실시되어 화목한 가족 만들기 효과와 사회문화와 역사에 대한 직접 체험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역사나 사회문화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편 밀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안인호)에서는 "앞으로 가족단위의 문화체험 여행 기회를 확

가족에게 문화여행은 가족단위로 실시되어 화목한 가족 만들기 효과와 사회문화와 역사에 대한 직접 체험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역사나 사회문화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편 밀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안인호)에서는 "앞으로 가족단위의 문화체험 여행 기회를 확



대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꾸세요! 기름값 비싸죠?

경유대비 70% 보일러등유 대비 53% 절감

난방비 70% 확실히 절감시키는 원적외선 펠릿히터 판매1위 회사

아직도 기름난로, 전기난로를 사용하십니까? 매년 폭등하는 전기요금, 기름값!!!

펠릿 보일러의 명가 규원테크가 기름히터 대비 연료비가 70% 이상 절감되고 사용중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인기리에 해외수출중인 제품입니다)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 설비
인증취득

기름히터
대비연료비
50%이상
절감

친환경
교효율
펠릿버너
장착

인공지능
마이컴제어!
편리한 사용

왜! 스마트 원적외선 펠릿히터가 좋은가?

- ▶ 경유대비 70% 보일러 등유대비 53% 획기적인 연료절감
- ▶ 원적외선 히터는 노폐물 및 유해금속을 배출시키며 신진대사 촉진에 탁월한 효능
- ▶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국내 최고효율 96.4%~2만kcal/h)
- ▶ 인공지능 마이컴방식의 콘트롤 적용으로 연료 자동투입, 자동점화, 실내온도 자동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이 편리함
- ▶ 최첨단 안전시스템 적용(이중과열방지, 역화방지, 기울림방지, 연료병목현상감지 등)
- ▶ 사무실, 공장, 골프장, 식당, 휴게소, 사찰, 성당, 교회, 양계장, 화원, 강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경제적으로 사용가능

※목재펠릿이란?

버려지는 목재부산물들을 톱밥처럼 분쇄한 다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인 청정목질계 바이오 연료인 펠릿을 사용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효율이 인되는 유사품 구입후 후회하지 마세요! 산게 비지떡 입니다!

2012년 산림청 국가공공기관 보급 1위
2011~2013년 중대형 펠릿보일러 보급 1위

※10평~70평까지 다양한 크기의 제품 구성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PL) 2억원

010-3889-8949

제품상담구입문의

상동 초·중통합 상동체육관 개관식

통합교 교육여건 개선기대

상동 초·중학교(교장 이태우)는 지난 14일 '상동 초·중학교 통합 기념 및 상동체육관 개관식'을 가졌다.

그동안 통합운영에 관한 학부모 공청회와 통합학교 개편 행정예고를 거친 후 2013년 3월 1일자로 우선 행정적인 통합을 하였고, 그 후 연면적 1637.08㎡ 지상 2층 규모로 약 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동체육관과 급식소, 병설유치원, 특별교실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등이 완성되어 올해 여름방학 중에 초등학교가 중학교로 이전을 하여 2013년 8월 21일자로 진정한 통합학교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상동체육관의 신축은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님이 통합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겨 추진하였고 임용수 밀양시장님이 지원했다. 이번 통합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두 학교를 겸임하며, 본관은 초등학교, 후관은 중학교가 생략하게 되었다. 체육관을 비롯한 그밖의 시설은 공



동으로 사용하고, 체험학습, 졸업식, 종업식 등 모든 행사를 함께하여 행정 간소화는 물론 선후배간에 유대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관과 다목적 시설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 현 정부의 교육비전인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고, 중학교 한 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도

입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해 종이에 쓰지 못할 시험을 보지 않고 교과별 특성에 맞는 체험과 참여 위주의 수업을 실시하여 행복학교를 만들기 위한 행복교육의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는 물론 지역민들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 교육감, 신진용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 교장 등 교육계 인사와 임용수 밀양시장 등 지역인사, 학생은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통합 기념으로 소나무와 무궁화 식수, 밀양아리랑 플래시몹과 사물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고영진 교육감은 "이번 통합으로 상동 초·중학교의 교육발전은 물론 밀양 상동면 지역사회의 원대한 희망을 기억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고 밝히며, 통합교장인 이태우 교장은 "합계 고만하고 노력하여 마침내 성공적인 통합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새롭고 쾌적한 환경과 초·중학교가 한 가족이 된 모습을 일리고, 기쁨을 다 같이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구독신청·광고문의
TEL 055(351) - 3211 FAX 055(351) - 3212

야생화 향기 맡으며 향초와 떡 만들어요

상남초, 참샘허브마을 체험

상남초등학교(교장 장창표) 1-3학년은 지난 17일 초동면 봉황리 종남산 자락에 위치한 참샘 허브마을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물에 대해 호기심이 왕성한 저학년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체험학습에 참석한 15명의 학생들은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서 야생화와 허브를 관찰하고 직접 인절미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나눠먹었다. 특히 고사리 손으로 직접 향기 나는 양초 만들기 체험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했다.

이 같은 생태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남을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태도를 익히기도 하였다.

이번 현장체험 학습에 아동들과 함께 참여한 1학년 담임 김순옥 교사는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체험활동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으며 특히 해맑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천호 기자

예림초, '예리한사람 교육' 우수학교 선정

예림초등학교(교장 고영관)는 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즐겁게 배움에 참여하고 서로 어울려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예림 가족의 사랑과 희망을 담은 '예림지혜의 꿈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차근차근 실행해왔다.

그 결과 예림초등학교(교장 고영관)는 '예림지혜의 꿈을 키우는 예리한사람 교육'을 통해 2013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게 되었다.

예림초등학교(교장 고영관)는 '예림을 지닌 가장 훌륭한 사람을 키우자'라는 예림 교육 구성원 모두

의 바램을 바탕으로 '예리한사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예리한사람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토대 위에 교과 특성을 살린 신바람 나는 생각 키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 키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건강 키움, 배움의 즐거움과 배움의 기쁨을 통해 저마다의 끼와 꿈을 가꾸는 체험 중심의 꿈 키움 교육과정을 알차게 편성·운영하여 학생들이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고, 배운 것을 제대로 평가받는 신명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 더불어 배우는 참된 배움의 학교 모습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을 위한 '예림수업~복!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위한 '예림 꿈·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끼와 꿈을 펼칠 수 있는 특화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예림초등학교(교장 고영관)의 알찬 준비와 기대를 속에서도 더이 '예리한사람 교육'은 '예림지혜의 꿈'을 활짝 펼쳐지게 되었다.

이광열 기자



마음 보듬는 '부자사랑 캠프' 실시

밀양관내 초·중생 32가족 64명 참가

이들은 몰랐던 아버지의 향기를 새롭게 느끼고, 아버지는 잊고 있었던 이들의 향기를 다시 찾아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가슴 따뜻한 가족 힐링 캠프가 열렸다.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신진용)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고성에 위치한 경남교육종합복지관에서 '부자사랑 캠프'를 실시하였다.

첫째 날은 아버지와 아이들이 기뻐하며 작품을 만들어 가는 팀빌딩 프로그램, 아버지의 숨겨진 요리솜씨와 함께 아버지의 맛과 멋을 맛볼 수 있는 요리경연대회, 손편지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이해하는 마음리셋 프로그램,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감동의 캔들파이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랑의 대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날, 당황만의 상쾌한 공기를 벗삼아 신체를 함께 거닐며 새로운 하루 새로운 부자관계가 시작되고, 아침 식사 후 가벼운 라인댄스를 즐기며 가족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특강을 통해 한마음 된 서로를 확인하며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었다.

캠프에 참석한 밀양교육지원청 신진용 교육장은 "조지 박도 날드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 학생과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경험을 하게 됨을 축하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맺어진 따뜻한 부자관계가 행복한 가정과 함께 우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꿈과 끼를 기르는 행복한 밀양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승수 기자

예림초, 교육자료전 1등급

예림초등학교(교장 고영관)는 지난 10월 6일 실시된 제 44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체육 분야에 출품한 교사 정지환, 김호을 팀이 1등급을 수상하며 지난해 교사 권흥수, 박수영 팀에 이어 전국교육자료전에서 1등급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제 44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체육 '다기능 지시대를 활용한 피카기형 게임 완전장북' (교사 정지환, 김호을)이 전국 1등급을 수상했고 창의적체험활동 '나도 디자이너! 코드(Color&Design)와 함께 배우는 색·디자인 탐구 학습 자료' (교사 박수영, 권흥수)가 2등급,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놀이조작 활동을 통한 성교육 세트' (교사 이선옥)가 3등급을 받으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정지환, 김호을 교사는 처음 출품한 교육자료전에서 계획서 통과, 도대회 1등급, 전국대회 1등급이라는 눈부신 기록을 세우며 교육자료전에 강한 예림초등학교 교사들의 우수한 기량을 전국에 알렸다.

이광열 기자

● 교육 속으로~

산내초, 밀양영어연극 페스티벌 '대상'

단체 대상·개인 특별상에 지도교사상까지 3관왕

지난 8일 산내초등학교(교장 지현)의 4-6학년 학생들은 밀양연극촌에서 열리는 '제5회 밀양시 영어연극 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밀양시 영어연극 페스티벌은 올해로 5년째 열리는 행사로서 연극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움, 상상력을 선사함과 동시에 영어 학습 능력을 고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대회를 위해 산내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5월부터 여섯 달 동안 '플랜더스의 개'를 연습하며 영어권 문화에서 사용되는 비언어·반

언어적 표현, 실제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일상생활 표현을 익혔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유로운 표현법을 익힘으로써 예술적 경험을 키워왔다. 그 결과, 산내초등학교는 '제5회 밀양시 영어연극 페스티벌'에서 가장 우수한 팀에게 주어지는 상인 단체 대상을 거두었다. 그리고 주인공 네로 역을 맡은 이신하 학생은 개인 특별상, 지도교사 김남우는 국회의원상을 수상하여 3개의 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5학년 김효주 학생은 "처음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영어연극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있게 영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천호 기자

밀양초, 희망영어연극페스티벌 단체·개인 석권

밀양초등학교(교장 정상진) 예술영재연극반 학생 20명은 제5회 희망영어연극페스티벌에 '북남이와 친구들'로 출전하여 단체 금상, 개인연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력 신장 및 창의력·표현력을 함

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108밀양연극촌 우리동네 극장 및 참고극장에서 9개의 학교가 그동안 간고히 두는 솜씨를 뽐냈다.

'북남이와 친구들'은 요즘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왕따'를 소재로 한 것으로, 2013년 초 제 7회 밀양어리랑연극제 '최우수'를 받은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장현호 기자

2013 수성아트피아 공연예술축제 V ARTE AMOR

영무 **靈舞** 인간문화재 하용부의 듣는 춤, 보는 소리

2013. 11. 10 (일) 오후 5시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주최 | 수성아트피아 밀양전통예술촌 | 후원 |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예술소비운동본부

대추 먹으면서 축제 즐기는 멋과 맛

제6회 대추축제 성황... 대추씨 멀리빨기·은어잡기 등 즐거운 시간 보내

단장면 대추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단장면 법포리 아밭고 하천둔치에서 '제6회 밀양 대추축제'를 개최했다.

밀양 대추축제는 밀양시의 대표적 특산물인 밀양 단장 대추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대추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축제로 참여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6회 밀양 대추축제는 지난(26) 오전 10시 대추씨 멀리빨기, 은어잡기 등 체험행사와 무형문화재공연 등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6시 종년기원제, 16시 30분 개막식, 개막 축하공연 등 식후행사에 이어 27일은 후추 던지기 게임, 보물찾기, 제3회 밀양주부가요제 예선 등으로 펼쳐졌다.

이 외에도 대추 홍보관, 미르피아 홍보관, 대추씨 판매회관 홍보관 운영과 대추 정량탈기, 대추제기, 대추 찰떡 만들기 등 체험행사, OX게임,



대추 경매소, 보물찾기 등의 다양한 경품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을 즐겁게 했다. 한편 대추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

는 "축제를 통해 밀양 단장 대추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홍보하고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보고 즐기면서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겠다고" 밝혔다.

장현호 기자 jangh6204@hanmail.net

밀주초, 화훼영농체험 실시

지난15일 밀주초등학교 교장 문승택에서 4~6학년 학생들이 대상으로 경남화훼산업발전협의회 주최로 '화훼영농체험'을 실시하였다.

문화체험 및 경협의 쪽을 넓히고, 아울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꽃 체험활동을 통해 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신하 박사급 연구원과 경남화훼산업발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직접 본교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실제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꽃꽂이에 필요한 재료들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은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꽃꽂이 활동을 해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아동들은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강당에 모여 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바구니에 장미꽃 백화 등의 꽃을 직접 손질하고 꽃아보는 시간동안 즐겁게 체험활동에 임하였다. 평소 꽃에 대한 관심이 많아 꽃꽂이를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곳이 없어서 안타까웠다는 한 아동은 "이번에 다 같이 조그만 꽃바구니를 만들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라고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현천호 기자

포토뉴스



농업기술센터소장(안영진)이 수료생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시농업인대학 시설딸기과정 수료식

밀양시(시장 임용수)는 지난 10월 22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전문기술 및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밀양시농업인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3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밀양시농업인대학은 지역최고소득 작목인 시설딸기 과정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간 24회 총100시간에 걸쳐 딸기재배 기술 마케팅, 경영관리, 현장건설 등 교육과정을 추진하였다.

불구하고 열정을 쏟아준 교육생들에 감사드리고, 우리시 소득작목인 딸기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하여 전국최고의 시설재배 단지육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수료식에는 농업인대학 운영시 학생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학생지원장관을 겸임한 김관근에게 농촌진흥청장상이 주어졌다.

한편 김관근 학생장은 이번교육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한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며, 과학적인 이론과 영농경험을 접목하여 성공하는 장소농업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현천호 기자



농협, 오순절 평화마을서 봉사활동

NH농협 밀양시지부는 22일 삼랑진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밀양시 농협 상생 발전 협의회 소속 회원들 50명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환경 정화 활동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소외계층과 함께하고자 사회 복지시설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방문해 10만 원 상당의 생활 용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내 화장실 청소 등 주변환경 정리 후 시설에 게시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오순절 평화의 마을'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년에는 가곡동 산성산 등산로

이광열 기자

사과와 꿀이 만나 '달콤상큼 와인'으로

농진청, '허니와인' 만드는 기술 개발

달콤한 꿀과 상큼한 사과즙이 만나 새로운 와인으로 변신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춘)은 꿀에 사과과즙(천연주스)을 넣어 맛과 향이 뛰어나고 기호성이 우수한 새로운 '허니와인(Honey Wine)'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허니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11~13도 정도로 달콤하면서 상큼한 맛과 향, 그리고 연한 노란빛의 부드러운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허니와인은 당도가 높은 꿀을 물로 희석해 발효시 효모가 자랄 때 필요한 영양소의 균형이 맞지 않아 발효가 늦어지거나 도중에 멈추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허니와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이 풍부한 천연과즙으로 꿀을 희석함으로써 발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들었다.

만드는 과정은 ①저장 사과과즙을 1:25 비율로 섞은 다음 효모를 전체 무게 대비 0.03%(3g/10kg)로 넣는다. ③효모를 넣어 섞은 원료를 20~25℃ 정도로 조정해 다음 12~15일 동안 발효한다. ④발효가 끝나면 밑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버리고, 위의 와인 발효액을 다른 용기로 옮긴다. ⑤분리한 와인을 12~15℃의 저온에서 2~3개월동안 숙성시키면 맑고 향긋한 허니와인이 완성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며 앞으로 산업체에 기술 이전할 계획이다.

장현호 기자

수정란 이식으로 희소 한우 유전자원 조기 증식

암·수소 동시 개량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호르몬 처리를 통해 난자를 과배란 시켜 수정란을 대량 생산해냄으로써 질소와 흑우, 백한우 등 희소 한우 유전자원을 조기 증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호르몬 처리를 통한 과배란 처리 방법은 마리당 55개의 이식가능한 수정란을 생산하는데 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특허를 받은 '저영양 처리에 의한 체내 수정란 생산방법'은 평균 11개의 수정란 생산이 가능해 수정란 생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50% 정도 줄일 수 있다.

'저영양 처리에 의한 체내 수정란 생산방법'은 양호한 건강상태의 암소에 호르몬 처리 시작 1주일 전부터 채탄일까지 23일 동안 일시적인 저영양 사양에 의한 영양조절을 하며 질 높은 수정란을 10여 개 만들어 대리모에 이식함으로써 유전적으로 우량한 송아지를 더 많이 생산



합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한우는 일반적인 한우와 질소, 흑우, 제주흑우 등 4개 품종이 있는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멸종위험도 기준에 의하면 한우를 제외한 3개 품종은 멸종 위험에 있는 품종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질소는 1,600여 마리, 흑우 150여 마리, 제주흑우 43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가족유전자원시험장

고영규 연구사는 "저영양 처리에 의한 체내 수정란 생산방법을 활용하면 암소와 수소를 동시에 개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증식이 가능 하다"라며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비 절감이 쉽지 않은 한우농가에 도입하면 조기에 개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농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백한우를 비롯해 질소, 흑우 등 멸종위기 단계에 있는 희소한우들을 복원하고 대량 증식해 유휴 축군을 조성함으로써 백한우, 질소, 흑우의 차별적 특성을 구명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현장적용 노력으로 희소 한우 조기 증식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라며, "다양한 한우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이들 유전자원에 대한 차별적 특성들을 밝혀 나가는 연구를 통해 가족 유전자원의 가치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밀양아리랑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미미조경

굴삭기 예초·파쇄

작업안내

제방, 산책로 잡풀·잡목 제거
작업으로 시민 편의 향상·재해
사전예방 크게 기여

미미조경

H·P : 010-3564-4756
E-mail : hurr4001@naver.com

예초기 작업

- 기존 단차면이 40cm이하 시멘트 5cm ~ 최대 30cm 정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 밀집 잡초(100cm) 제거 11m ~ 1.5m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 가시성, 안전성, 적은 소음(Chase)이 뛰어나고 작업이 쉽습니다.
- 단차에서 많이 떨어진 언덕에서는 안전사고는 예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 타사도 예초기도 판매합니다.

파쇄기 작업

- 기존 단차 및 잡풀 제거에 작업할 시 10cm 이하 정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 파쇄된 폐기는 바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이름으로 존칭합니다...

밀양출신 이영주 해병사령관 취임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31·32대 해병대사령관이 취임식에서 이영주 신임 해병대 사령관(오른쪽)이 황기철 해군총장으로 부터 해병대기를 이양받고 있다.

밀양출신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에 내정 취임해 밀양인의 긍지를 심어 준다. 밀양 예비출신인 이영주 사령관은 밀양초-밀양중-대구 대륜고-해군사관학교(35기)졸업해 합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소장)으로 일하다 이번에 중장 진급과 함께 해병대 사령관으로 취임했다.

밀양인으로서 경스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영주 해병대사령관은 대구 대륜고를 나와 해사35기로 입관해 작전 부서와 전방 부대는 물론 교육과 연구분야에도 근무한 해병대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해병대사령부 기획관리부장, 6여단장, 합참 교리연습차장, 1사단장, 국방 전비태세검열단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전비태세검열단장으로 재직하며 각군 후방에 있는 전 부대를 실전과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 불시에 점검하고 보완시켜, 지속된 적의 위협에 대해 군 전투력을 한 수준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부하들에게 학습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과 논리가 한층 강화된 '지식전사' 양성을 통해 새로운 방향의 무형 전투력을 창출시켰다.

군 매체에 일정기간 '병영칼럼'을 써 오면서 장병들에게 근생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입관 후 사령관 임명까지 전 계급에서 단 번에 진급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강력한 방향성과 추진력으로 해병대의 전투력을 한층 높여갈 인물로 일찌감치 점쳐졌다. 가족으로 부인 김정주씨와 1남1녀가 있다.

▲예비출신(56) ▲대륜고 ▲해사 35기 ▲해병대 기획관리부장 ▲해병 6여단장 ▲합참 교리연습차장 ▲해병 1사단장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을 두루거친 이영주 신임 해병대사령관 취임식이 지난 28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관 연병장에서 거행됐다.

이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호국 충성 해병대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소방서, 직업체험 교육 중학생 30명대상 실시

밀양소방서(서장 정중성)는 지난 22일 소방서 3층회의실에서 밀양중학교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소방조직의 구성, 소방업무 및 소방공무원이 되는 방법 등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착용, 구조장비 체험 및 소방차량 체험 등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소방공무원 직업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소방공무원을 더 많이 이해하고 향후 진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직업체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밀양인의 향기



부북면 청년회, 정철우 학우 지원

부북면청년회(회장 박희경)는 지난 10일 부북초등학교 어린이회(학교장 서보종)에서 결의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한 친구에게 학업성취 욕구를 북돋게 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모금 운동' 안내장을 확인하고 청년회 전회원의 뜻을 모아 부북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지정기탁 방법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었다.

밀양 부북면청년회는 부북면 출신의 50세 이하 청년의 모임으로 부북면을 비롯한 밀양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중점사업은 어려운 가정환경의 허술한 가구 '주택개선 사업' 지원으로 다함께 잘사는 부북면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2013년도 특별사업으로 주택개선 사업 지원금(일백만원)을 본교 6학년 정철우 학우 돕기에 지원하였다.

부북청년회장은 "뇌손상으로 가정을 부양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암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필리핀)를 병원과 학교 가정을 오가며 학업에 열중하며, 2012학년도 밀양시 영어연극페스티벌 대회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는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정철우 학생이 그 꿈과 끼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현천호 기자



밀양교육지청, 사랑의 연탄배달

평소 남다른 나눔의 정신을 펼치고 있는 밀양교육지청(교육장 신진용)에서는 봉사단체 사표문과 함께 10월19일 작은 마음을 모아 사랑을 가득 담은 연탄을 어려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밀양교육지청에서는 예년보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 예상됨에 따라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힘들게 겨울을 준비하는 가구에 사랑의 연탄1,400장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연탄 선물들 받게 된 지역주민은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겁나 거의 방방에 서 지냈는데 올해는 선물 받은 연탄으로 인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신진용 교육장은 "작은 마음이 모이면 큰 보람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봉사 활동으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호 기자 janghh6204@hanmail.net

밀양 유일 코스닥 상장 '한국카본' 산업대전서 은탑 산업훈장 수상

지난 28일 16일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진흥회 등 5개 기관이 주관하는 2013년 한국 산업대전에서 밀양지역 유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한국카본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국산업대전은 국내기계류 수출확대 및 연관 산업간의 동반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 되는 대회이다.

개막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1차관,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경기도 고양시 최성 시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이한철 회장, 한국공공기업진흥회 최용식 이사장, 유공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주)한국카본은 1984년 부산에서 낚시대 재료인 Carbon

Sheet를 생산하는 회사로 시작하여 1988년 밀양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특정적 기술개발에 매진한 결과 1991년 항공기용 복합소재 개발로 장영실상 수상, 1993년 방위산업체 연구개발분야 대상, 2004년 유리섬유 파이프관 환경부 장관상 수상, 2008년 환경신기술개발 환경부장관 표창장 등을 수상했다.

(주)한국카본은 2001년 LNG 화물창 단열소재 산업에 진출하여 2001년 7월 GTI프랑스기술사의 인증을 획득해 전량 일본에서 수입 의존해 오고 있던 LNG화물창 2차 방벽용 소재인 Rigid Secondary Barrier 국산화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주)한국카본의 조문수대표이사는 현재 밀양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광열기자

미리벌중 설립 차질 없이 추진

밀양교육지청(교육장 신진용)은 청도지역 초·중학생 29명과 기숙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청도지역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부모 및 지역민,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10월 23일 괴산오성중학교를 견학했다.

충북 괴산오성중학교는 괴산군 면지역의 소규모 중학교 3개교를 통·폐합하여 2013년 3월 1일 개교한 기숙중학교로 설립됐다.

밀양교육지청에서는 2015 3.1.자 개교를 목표로 기숙중학교가 청, 미리벌중학교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시설품사 설계용역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2014년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공모에 의한 교명 선정, 시설물 건축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견학은 기숙중학교 설립 추진계획의 일부분으로 청도지역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맞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설립에 있어

밀양교육지청, 타·시도교육청 벤치마킹



학부모 및 지역민 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앞으로 세 워워 기숙중학교는 행복교육을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날 견학자들은 먼저 학교강당에 모여 홍보영상상을 시청하면서 학교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

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안내에 따라 일반교실, 특별교실, 급식소 등 시설곳곳을 둘러보며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견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실진행된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보니, 1년 후의 우리 생활이 그렇게 정말 좋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천호 기자

밀양아리랑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드십니까?

정 하 우 징

전원주택 / 스틸하우스 / 목조주택 / 테크 / 파고라

직접 설계 / 3D 작업

23년의 시공 경험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 POSCO 출자사 POSHOME 시공
- 포스에코 협력시공

TEL : (055) 352-5005 H.P : 010-5000-3435



대강당은 전체 512석의 좌석이 있지만 들성들성 자리가 비어 있는 등 3분2기량을 채우는데 그쳤다.

송전탑 갈등 시민의 날 기념식장 ‘썰렁’

한마당 축제도 축소

17일 제 18회 밀양시민의 날 기념식이 착잡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열렸다. 한국전력공사와 경남 밀양시 4개 면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기념식이 열린 시청 2층 대강당에는 시종일관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50여 분 동안 진행됐다.

대강당은 전체 512석의 좌석이 있지만 들성들성 자리가 비어 있는 등 3분2기량을 채우는데 그쳤다.

기념식은 시민환영 남북, 시민대상 시상, 밀양시 관원축하의 축하 연주, 밀양시 여성합창단의 축하 시가시 낭독 제창 등으로 소박하게 치러졌다. 지난해 기념식 때에는 전 좌석을 꽉

메웠을 뿐 아니라 좌석 옆 공간에도 사람들이 북적이는 등 활기찬 분위기였으나 올해는 송전탑 갈등 탓인지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고 행사 지원 담당 한 공무원이 전했다. 기념식 행사에서는 내빈 소개도 하지 않았고, 압송수 시장과 박필호 시의회의장만이 짧막하게 기념사와 축사를 했다. 임 시장은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주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어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대다수 주민의 화합을 위해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아 기념식을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고 송전탑 갈등 사태에 따른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16개 읍·면·동 시민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지만 체육대회는 잠정 유보하

기로 했다”면서 “체육대회를 유보한 이 결정은 밀양 시민 전체의 마음이라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박필호 의장은 “겨울이 혹독할수록 북이 찬란하다”며 “하늘이 내린 축복의 평안 밀양은 앞으로 있을 그 어떤 시련도 잘 견뎌낼 것으로 믿는다”고 한전과 주민의 갈등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17일 오후 6시 30분 밀양시 삼문초 야외공연장에서 열릴 시민 한마당 축제 행사에서도 시장 등 기관·단체장의 축사를 생략하기로 하는 등 축제를 일정 일부 축소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주민 박모(66·나이동씨는 “송전탑 문제로 주민들끼리 분열돼 마음이 아프다”며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 화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호 기자



남천강변 투썸플레이스 앞 이동 CCTV.

불법주정차 살살이 단속

시, 고정형 CCTV 2개소·주행형 1대 추가 운영

밀양시는 2013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는 밀양시 전역 12개소에 설치되어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2013년 10월부터는 2개소(삼문동 축협한우프리카 주변, 무안면 새마을

급고 주변 추가 증설 및 기존보다 더 주변의 고정형 CCTV를 남천강변로 주변으로 이동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과 민원 다발지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주행형 CCTV를 1대 추가 설치하여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근절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

무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밀양시는 올 해 7월부터 서민보호 행정과 합리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기준시간을 조정하여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30분으로 완화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현호 기자

인터뷰 | 송전탑 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에 문제점을 듣는다

“약한사람들 짓밟는 국가, 집단 패륜”

대담: 장현호 편집국장

송전탑 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을 만나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공사 재개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한전 측과 대화체널이 있나?

“전혀 없다. 예전엔 막후 채널도 있었고, 대화도 제법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공사 강행하면서 끊어졌다. 또한 공사강행을 전제로 한 대화는 있을수 없다고 본다.”

-‘용산참사’와 같은 파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공은 정부나 한전에 있다. 파국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가 제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사 재개하고 지금까지 25일이 흐르렀다. 사망 사고만 나지 않으면 밑이 벌어질 것이 정부와 한전의 태도다. 노인들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그들이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나 한전의 입장변화는 없는 것인가?

“그들은이번에 못하면 영영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런데 공권력이나 공기업이 그런 식의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든지 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한테 마치 완력을 쓰는 ‘이깨들’처럼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군기를 잡듯 행동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공공갈등이 밀리면서 다른 곳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 라고 판단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지금 공사를 들어올 이유가 없다. 신고리 3호기 내년 준공이 어렵다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다. 찾다가 찾은 명분이 신고리 3호기인데 그게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공권력을 3000명이나 동원해서 노인들 대상으로 전압작전을 하면 되겠다. 주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고 경찰들이 임도를 막고 법을 어기고 있다.”

-지난 7월 압송수 시장의 도청 기차회견이 공사재개의 신호탄이었던 것 같다. 밀양시와는 대화체널이 있는가?

“지금 밀양시는 주민들의 공공의 적이다. 한전의 행동태도이다. 유신시대처럼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주민을 쫓아다니며 보살핌 설명하고, 그러면서 욕 얻어먹고, 쫓겨나거나 바보처럼 서 있다. 우리가 불인 팽창해도 공무원들이 다 폐고 그자리에 관변단체들 편잡막 및 백 장이 시내를 도배했다.”

-송전탑 문제에 무관하던 밀양시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나노산업단지 때문이다. 이번에 국무총리 왔



이계삼 사무국장과 김준환 신부 표정이 착잡하다.

을 때 유치물 보장받았다고들 하나씩 말하자면 이걸 ‘고려장’이다. 노인들 생존권 팔아서 나노산단유치한다는 건 현대판 고려장이다.”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위협은 어떤 것인가?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공사를 중지시킬 권리가 있다. 동의도 없이 자기 생존권을 빼앗겼다. 정부나 한전은 법질서를 이야기하는데, 그 법이 일방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도 없다. 일방적으로 노선 그려놓고 따라와야 하면 누가 따라가나?”

-최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외부세력’을 치면 노인들이 주저앉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외부세력’이란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공공사업에 외부세력이란 단어는 없다. 전기 쓰는 사람이 다 이해 당사자다. 또한 사회정의가 심각하게 위반될 때 언대하고 돕는 것은 시민으로서 의무다. 고통 받는 노인들을 외면하지 못해서 온 분들이다. 주민들 입장에서 진짜 외부세력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한전과 정부다. 아주 저열한 시도인데, 이런 것이 막히는 것이 안타깝다.”

-한전이 지금까지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사실 지금은 한전은 결정권이 없다고 본다. 청와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총리실이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을 했다. 총리실은 결국 청와대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본다.”

-밀양송전탑 문제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기본적으로 밀양 싸움이 사회에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누군가의 고통에 기초해 있다면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는 각성의 메시지로 본다. 전력산업계가 전기를 막 쓰게끔 핵발전소를 짓고, 시골노인들이 사는 곳을 밟고 밟고 지나 도시로 전기를 끌어가는 것. 그리고 대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이하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 그런 부도덕한 시스템이 밀양 싸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본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르신들의 생존권은 너무 소중한 문제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제 지금도 딱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이다. 고향의 노인들을 산으로 올려 보내고, 손에 피멍이 들도록 손수레 되는 경찰과 마주하게 하고 비를 맞으면서 노숙농성을 하게 만드는 이런 국가가 도덕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것인가? 이걸 패륜이다. 집단패륜.”

노인들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한전 결정권 없다...청와대가 움직인 것

하는데 이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나?

“그건 이 건과 다른 것이다. 그건 전기사업법 전소나 송전선로를 더 잘 짓게 해주는 특별법이고 기본 사업법은 전기사업법이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이걸 더 잘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상인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상법이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보상이든 보상은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 또한 그 법은 엄밀히 따지면 신규 송전선로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밀양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언론이 이번 문제를 다루는 방식 때문에 말들이 많다.

“참답하다. 미칠 것 같다. 환경하겠다. 전형적인 경매자발리듬이다.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총들상황만 전달한다. 그때도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고향의 주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엉뚱한 것으로 비틀어 흔하 말하는 ‘외부세력’을 친다. 노인들이 혼자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현호 기자

2013 정기공연

(제4회 JPRC, 제2회 LAM)

JPRC & LAM

힐링 락 콘서트

History

JPRC (Jazz Pop Rock Club)

- 2004.10. JPRC밴드 창단
- 2005.11. 카페개설(http://cafe.daum.net/JPRLOVE)
- 2006.10. 자체발표회
- 2007.11. 자체발표회
- 2008.10. 자체발표회
- 2009.08. 청소년을 위한 RockConcert(제1회 JPRC Concert)
- 2009.08. 미소락축제 RockConcert
- 2010.10. 청소년을 위한 RockConcert(제2회 JPRC Concert)
- 2012.09. 밀양시민을 위한 RockConcert(제3회 JPRC Concert)
- 2013.05. 제56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시민어울림 음악회
- 2013.06. 초동면민 사랑음악회

[특별출연]

댄스팀 S&A

일시 | 2013. 11. 09 (토) 16시

장소 | 밀양시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주관 | JPRC & LAM BAND

후원 | 밀양시, (주)에스피, 밀양아리랑신문



세종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

밀양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세종고등학교 개교60주년 기념행사



기념식 및 여권음악회

2013. **11.9**(토) 오후 **6**시
남천둔치 야외공연장

| 특별출연 | 장윤정 걸그룹 스피카



바리톤 **이종훈**



비보이더클래시



락밴드 블랙잭



메리트무용단

세종고등학교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고문** 손영진(1), 신계식(1), 안경수(3), 민병환(3), 신상두(4), 이상조(4), 장익근(4), 신윤철(4), 이원도(11), 박종훈(14), 윤정갑(19), 이동본(21), 이기용(21), 장병태(21)
- 자문위원** 남태경(9), 강기원(9), 신태철(12), 이우걸(12), 정동규(13), 이준성(14), 박한용(14), 배기호(14), 박철원(18), 손진곤(18), 김갑순(19), 김유곤(19), 하석상(19), 전재술(20), 이학수(20), 장종묵(20), 김관용(21), 박노대(21), 신현철(22), 신용길(22), 노태목(22), 최준두(22), 조홍식(22), 김기철(22), 윤석영(명예동문)
- 추진위원장** 박현수(23) **공동집행위원** 김광순(17), 변동환(24), 김팔생(오교 교감)
- 부위원장** 손영준(23), 윤태수(23), 차현욱(23), 손찬규(23), 신용명(23), 조희천(23), 정태문(24), 함광석(24), 진광욱(24), 김병권(24), 박상교(24), 박헌재(25), 신대철(26), 김유섭(26), 이희재(26)
- 추진위원** 이상진(22), 김창근(22), 서동수(23), 이상익(23), 구경주(23), 정대권(23), 김동태(23), 조성환(24), 김병근(24), 김홍문(24), 박성훈(25), 고중수(25), 김원보(25), 이원준(25), 장대근(25), 장진보(25), 신동훈(25), 윤상욱(25), 지정근(26), 김근수(26), 김덕현(26), 김재수(26), 이연철(26), 여인수(27), 안병문(27), 손원식(27), 조현달(27), 이원기(28), 유병희(28), 신동백(28), 김상두(28), 문경률(28), 조영훈(29), 서보림(29), 이정재(29), 정봉현(29), 안성환(30), 안창환(30), 김정동(30), 조영복(30), 강병달(30), 황길연(30), 박찬식(30), 서보태(31), 김성호(31), 김정욱(31)
- 기획국장** 도기정(28) **재무국장** 조청우(30) **총무국장** 박성철(31)
- 홍보분과위원** 권현호(27), 김선곤(28), 안현섭(28), 최태영(28), 최두수(28), 김상민(29), 김창홍(31), 김기수(32), 황상암(33), 최윤석(32), 안인환(34), 김석연(34), 이수희(34), 장성배(35), 락순(35), 이만희(39), 박준수(39)
- 인사지원분과위원** 박희진(29), 김태경(31), 이두석(31), 박진홍(31), 석정원(31), 황근연(33), 조우중(33), 김순기(34), 김순태(35), 구본현(36), 박진현(36), 김덕우(37), 박재익(39)
- 진료지원분과위원** 손영배(31), 김태성(31), 심동조(33), 배태원(33), 송만원(33), 황광연(34), 김중대(34), 이정대(34), 최대중(35), 전병희(35), 김동호(36), 조동현(36), 주동일(36), 최동훈(37)
- 행사지원분과위원** 박정우(27), 정석만(28), 윤의태(28), 류숙희(28), 나광호(29), 장성호(29), 김광태(31), 서광석(32), 노종석(33), 박재균(33), 윤태형(35), 한기덕(35), 장익대(35), 윤여현(35), 장창걸(36), 김영기(37), 김진일(36), 이한수(39), 김준민(40), 김성준(41), 박시원(42)
- 학교실무담당** 이정우(29), 윤종덕(30)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자율학교(전국단위 모집)

세종고등학교

개척하고 정진하는 과정
In Seoul 수도권 대학 진학의 상설
학습의 전당, 변혁관 기숙사

| 원서접수기간 |
2013년 12월 9일(월)~12월 11일(수) 17:00까지

| 접수장소 |
세종고등학교 행정실

| 합격자발표 |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별교 홈페이지 게시 및 정확고 개별 통보)

| 입시상담 |
교무실 : 055)356-7983-4
행정실 : 055)356-7985
교무부장 : 010-9678-0170
학교 홈페이지 : www.sejong.hs.kr